

축사 환기·냉방 시설 미리 살펴주세요

출처 : 농촌진흥청

- ◎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꼼꼼한 축사 관리로 가축 스트레스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.
 -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발생일 수는 31.4일(평년 9.8일)로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컸다.
 - 가축이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을 많이 마시고 사료는 적게 먹어 결국 체중이 늘지 않는다. 또한 번식장애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.

- ◎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환기팬이나 송풍팬을 이용해 축사 안에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다.
 - 개방형 축사는 출입문, 윈치커튼¹⁾을 개방해 외부 공기가 쉽게 드나들게 한다. 송풍팬을 함께 이용할 경우 축사 주변에 형성되는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.
 - 강제 환기로 온도를 조절하는 밀폐형 축사는, 입기²⁾와 배기³⁾팬이 잘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
- ◎ 가축이 머무는 운동장과 축사는 차광막 등을 이용해 그늘을 만들어 준다. 이때 송풍팬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.

- ◎ 안개분무 등으로 몸의 온도를 낮추거나 축사로 들어오는 공기 온도를 낮추는 것도 스트레스를 더는데 도움이 된다.
 - 단, 내부 습도가 오르면 가축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축사바닥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을 정도로 하고, 송풍팬이나 환기팬을 함께 사용한다.
 - 가축이 물을 마시는 시설을 점검하고 시원한 물(10~15℃)을 공급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료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한다.

1) 낮낮이 조절 커튼. 2) 공기를 넣음. 3) 공기를 빼냄.

◎ 축종별 더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(lib.rda.go.kr → 주요 발간도서)에서 '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온기 가축관리 핵심기술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◎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곽정훈 축산환경과장은 “축종과 축사형태에 맞춰 미리 점검하고,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.”라고 말했다.

참고자료

고온기 축사 관리 요령

<표> 축종별 적정온도와 상한 임계온도⁴⁾

구분	한육우	젓소	돼지	닭
적정온도(℃)	10~20	5~20	15~25	16~24
상한임계온도(℃)	30	27	27	30



축사지붕 및 축사 내 차광막 설치



우사 송풍팬 설치



육계사 환기팬 설치



축사 지붕 위 스프링클러



축사 내부 안개분무

- ※ 27℃이상의 온도에서는 가축이 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며 심하면 생산성이 감소됨
- ※ 축사 내 환기팬 또는 송풍팬의 설치는 풍속을 증가시켜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젓소의 경우 산유량도 증가시킴



스프링클러 미가동



스프링클러 가동

스프링클러 가동에 따른 우사 지붕의 열화상 차이

※ 축사 지붕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주면 지붕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축사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음

◆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규모

- 2018년 전국평균 폭염일수 : 31.4일(평년9.8일)(기상청, 2018)
- 2018년도 축종별 폭염피해(8,21기준, 농림축산식품부, 2018)
 - 닭 5,324천수, 오리 217천수, 돼지 19천두, 한·육우 7두
- 연도별 가축피해현황(농림축산식품부, 2018)
 - ('12) 1,857천 마리 → ('14) 994 → ('16) 4,180 → ('18) 5,615

4)체온조절의 한계 온도.